

“사계절 정원 즐긴다” 해남 스마트가든 조성

군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2개소... ‘스트레스 완화·심리 안정’

해남군은 일상에서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공기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스마트가든 2개소를 해남군 의료기관에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미세 먼지 저감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간에 적합한 실내 식물과 식물 자동화기술을 접목해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해남군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휴게공간 벽면에 설치한 스마트가든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한 의료진과 군민들에게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물은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스노우사파이어, 마블시킨담사스, 아비스 등 5종, 525본을 식재했다. 또 식물 생육상태에 따라 물을 자

동으로 공급하는 자동관수장치,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는 성장 조명을 설치했으며,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2019년에 실시한 도시생활환경을 위한 치유·휴식·관상용 정원 연구개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가든을 10분 체합한 후 측정결과 건강,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등의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산림청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관내 해남우리종합병원 등 3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보성물’ 오픈 5주년 할인행사 진행

온라인 농·특산물 전 품목 최대 30% 할인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농특산물쇼핑몰 ‘보성물’ 오픈 5주년 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별할인 행사는 농특산물 최대 30% 할인을 비롯하여, 신규회원 5,000원 적립금 지급, 구매금액의 5% 포인트 적립, 포토 상품 후기 작성 시 1,000원 적립금 지급, 매일 출석체크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성물은 녹차수도 보성에 걸맞은 다양한 차 연관 제품과 정정 특량만의 수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다. 녹차미인 보성쌀, 건강에 좋은 흑도마토, 신도블이 잡곡, 장

류 및 발효식품 등 89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5주년 기념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소비침체를 겪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농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성물(<https://mall.boseong.go.kr>)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4월 말 기준 14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매출액(9억 2천만 원)을 뛰어넘어 올해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시,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광양시는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을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아동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할 수 있는 광양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율주제로 진행되며, 광양시 거주만 18세 미만인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모기간에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중 선택해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 정책 제안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시 자체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개 제안(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선정해 7월 중 조정의 시상금(광양사랑상품권)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명중 아동친화도시과장은 “‘2022년 광양시 아동복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금남동 ‘식물재배기’로 홀몸 어르신 정서적 지원 눈길



“직접 기른 식물로 반찬도 만들어 먹고, 적적한 마음도 달래고 요거ť 참 즐겁하겠네!”

나주시 금남동은 관내 홀몸노인 20가구에 독거노인 정서안정을 위한 식물재배기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식물재배기는 집에서 콩나물, 무순 등 채소와 다양한 식물을 직접 키우는 ‘홀가드닝’ 제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을 돕고 반찬식물을 통한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위한 금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기획됐다.

금남동 지사협 위원들은 이날 노인 가구를 방문해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 1회 씨앗 교부와 어르신들의 인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나주금남동 가외집(대표 장민호)에서 기부한 품앗이꾸미(60개)도 가구당 3개씩 전달해 훈훈함을 낳았다. /나주=서철훈 기자

화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한다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농업경영·체험영농계획서 등 강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농지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게 대폭 개편됐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에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

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인 경우 관공과 임원명부, 그 외에 재직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가 직업, 농지 소유 요건 등 증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약정서와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인정 시군 외 관의 경작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을 희망하는 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순=주영현 기자

영암 아열대작물 바나나 실증시험 성과

새 소득작목 발굴 총력

영암군은 기후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지역에 재배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바나나, 파파야, 옹과 등 다양한 아열대작물의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바나나는 지난해 6월 기후변화대응 실증시험포에 3품종 45주를 정식하여 작부체계, 온습도, 병해충 관리법 등의 재배방법을 실증시험

하였으며 올해 5월 첫수확하여 바나나후숙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재배 결과를 토대로 지역바나나 재배농가 육성에 이용할 방안이다.

국산 바나나는 수입산에 비해 충분히 성숙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후숙 기간이 짧아 과육이 단단하고 식감과 향이 좋으며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먹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국산 바나나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지연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은 “아열대작물인 바나나 실증시험재배 성공을 기점으로 더욱 다양한 아열대작물의 실증 시험재배를 추진하여 영암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제3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 성료

가업계승 등 남녀노소 소득보장형 개체굴 산업 육성

신안군은 지난 12일 40명의 입교생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제3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교생 모집 시 농어업인과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군민과 다른 지역의 신청자 등 120여명이

접수해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체굴 양식은 타 양식품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적고 양식 소득율이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양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자자손손을 가업계승이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양식산업으로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전업 농어

업인, 귀어자 등 다양하게 선발했다. ‘1004굴’ 양식학교 교육은 종자 생산, 본양성, 유통판매 등 개체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자 중심의 현장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군은 교육생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식시설 지원, 양식 여장 면허 확보, 수협·어촌계 가입,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한국창의예고 개교 3년, 광양예술교육 첫 결실의 해

광양시, 개교 이후 10년간 총 100억 원... 올해 3년차 운영비 지원

전남 지역 첫 공립 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음악과 미술을 전공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20년 개교해 올해 3년 차로 첫 성과가 나타내는 해이다.

광양시는 전남의 가장 젊은 도시로 도립미술관과 연계해 미래지향적 예술인 양성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설립 당시 총사업비 320억 원 중 부지·시설비 일부인 134억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0년부터 운영비를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는 지원금으로 음악·미술 전문강사 50여 명을 채용해 맞춤형 전공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진을 초청한 클래식 및 실용음악 마스터 클래스, 한

국 최고의 반도네오니스트인 즉흥연주자 김국주와 소프라노 유희민 이상의 듀오 연주회, 피아니스트 임현정 초청 연주 및 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 등 문화계계를 선도하는 예술가와 소통하는 경험으로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르와 매체 사이의 융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시, 어린이도서관·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우수사례·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순천시는 순천기적의도서관 성년의 해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어린이도서관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003년 개관 이후 전국 어린이도서관 건국과 운영의 모범이 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성년의 해를 맞아 설립 취지와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순천기적의도서관 설립 이후 전국 어린이·공공·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서비스의 사례를 탐구하고 환경변화에 따

른 어린이도서관 미래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우수 현장사례’와 ‘아이디어’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1편에는 순천시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순천시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편에는 순천시장상 및 상금 50만원이 시상된다.

또한, 수상작은 11월 9일 개최하는 ‘제8회 순천독서문화포럼’에서 발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강진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서비스 시작

장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시장고객 물건 운반 도움

강진군은 경기집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물 등의 소비패턴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 4일부터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송도우미 서비스”는 강진읍 전통시장에서 고객이 구입 한 물품을 인근 주차장이나 버스 승강장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이다.

연두색 조끼와 모자를 쓴 도우미 2명은 강진읍시장 장날인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하면서 노인부터 장애인, 입산부 등 시장 이용자의

물건 운반을 돕는다. 또 도우미 활동을 펼치면서 어르신과 교통약자들이 장을 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전통시장 도우미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활력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 이외에도 전통시장 구매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곡성 주민 대상 디지털 체험존 운영

스마트폰·키오스크·AI 스피커 사용법 1:1 맞춤 안내

곡성군이 18일부터 곡성을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스피커 사용법을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생활에서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2022년 4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48%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고령의 주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통화와 같은 기능 외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최근 민간 분야는 물론 행정서비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과 온라인 활용이 늘면서 정보화 기기 사용법 숙지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활용도가 높은 필수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식당이나 각종 상점들

방문했을 때 고령층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키오스크다. 키오스크가 낯설어서 주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도 부지기수다. 곡성군에서도 이미 많은 식당과 카페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 및 커피 주문, 기차 및 영화 예약, 무인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체험존에는 AI 스피커도 체험할 수 있다. AI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 재생을 넘어 시간 라디오 및 뉴스 재생, 날씨 검색, 번역, 음성 검색, 일정 관리, 타이머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스마트 홈 구축과 가정 내 IoT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AI 스피커의 기본 사용법 교육과 함께 네이버 클로바에 연동해 홈 IoT 기기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체험도 제공한다.

디지털 체험존은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레저문화센터에 마련된 체험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곡성=이성희 기자